



97년도 낙농육우산업을 전망한다

특집

사료수급 전망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차장

1. 사료산업의 현황

1996년 현재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총 60개 회사에 82개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56개 공장이 사료협회 소속의 일반사료회사들이며, 나머지 26개 공장은 축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축협공장과 양축농가들이 만든 자가배합 사료공장들이다.

이들 전체 사료회사들이 1995년 생산한 총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1,470만톤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이중 73%인 1,073만톤을 일반사료회사가 공급하였고, 나머지 27%는 축협 및 자가배합 사료공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졌다.

축종별로 보면 양계사료가 25.6%, 양돈사료가 32.2%, 유우용사료가 14.3%, 비육우사료가

25.0%, 기타사료가 2.9%로 구성 되어있고, 과거에는 양계사료와 양돈사료의 비중이 높았지만 갈수록 비육우사료를 비롯한 대가축사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96년에 들어서도 배합사료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96년11월말 현재 전체배합사료 생산

량은 1,435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1996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1,60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난 2년여동안 배합사료업계의 생산량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해 왔으나 97년도

〈표 1〉 배합사료 생산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 양계 | 양돈 | 낙농 | 비육 | 기타 | 계 |
|--------------|-------|-------|-------|-------|-------|--------|
| 1990 | 3,274 | 3,550 | 1,789 | 1,666 | 144 | 10,425 |
| 1994 | 3,487 | 4,476 | 2,056 | 3,194 | 331 | 13,544 |
| 1995 | 3,766 | 4,725 | 2,095 | 3,681 | 428 | 14,695 |
| 1995.1~11(A) | 3,437 | 4,258 | 1,900 | 3,329 | 382 | 13,306 |
| 1996.1~11(B) | 3,528 | 4,518 | 1,977 | 3,755 | 575 | 14,353 |
| 전년동기대비 (B/A) | 102.7 | 106.1 | 104.1 | 112.8 | 150.4 | 107.9 |

자료 : 한국사료협회 생산실적

의 배합사료생산량은 지난 2년여 동안과 같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97년부터는 전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예시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나라 배합사료생산량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5년 생산한 배합사료 생산량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보면 우리 국민 1인당 약 329kg의 배합사료가 생산된 것으로서 이웃 일본의 201kg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95년에 2,497만톤을 생산하여 88년도 2,644만톤을 생산한 이후 해마다 배합사료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과 같이 축산물 수입이 늘어날 경우 배합사료 생산량의 감소가 불가피하리라 보여진다.

그리고 배합사료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거의 같은 양의 사료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들 사료원료의 대부분이 수입원료로서 외국에서 조달되고 있다. 일부 국산 옥수수나 광물질 원료만이 순수한 국산원료로서 이는 전체 원료사용량의 5%도 안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사료곡물이 우리나라 수입품목중 단일품목으로 원유 다음으로 큰 품목이 되었고, 미국 사료곡물 수입국중 2번째 큰 고객으로 뱅크되어 있다. 이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다보니 국내 사료산업은 구조적으로 국제곡물시장에 종속될 수 밖에 없었으며, 축산업 또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게다가 사료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장치산업으로 타제조업과는 달리 원재료비 비중이 높아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제조원가중 약 85%가 원재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사료원료가격이 상승하면 여타 제조경비를 줄여가면서 인상요인을 흡수하라는 양축농가의 요구도 많지만 경영합리화만 가지고 풀 수 없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

2. 국제사료곡물시장의 동향

1996년의 국제곡물시장을 회고해 보면 지난 10여년 이래 가장 어려웠던 한해로 기록될 것 같다. 미산 옥수수 가격이 톤당 250불대까지 치솟을만큼 급등세를 보였으며, 물량확보가 우려될만큼 심각한 수급불안정을 나타냈다. 이는 1994년도의 미산 옥수수의 평균가격이 132불이었던 것에 비하면 89% 상승한 셈이고, 과거 100불대의 중국산 옥수수 가격에 비하면 두배이상 상승한 셈이었다.

또한 94년부터 95년초까지는 옥수수를 대체하여 100불 내외의 사료용 소맥과 호밀을 수입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옥수수를 대체할 이들 곡물들의 수출여력도 바닥난 실정이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상승폭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배합사료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미산 옥수수만해도 700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사료업계는 1995년도만

하더라도 상당량의 옥수수와 호밀, 소맥등을 조기에 저가구매하고 물류비용등을 줄여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기타곡물의 수출여력도 바닥나고 원화가치마저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두차례의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였다.

이같은 어려움은 사료원료를 해외에서 수입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을 확보하여 사료가격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농민단체인 전농의 경우 지난해 3/4분기 이후 매분기 가격조정을 통해 1년동안 35.5% 배합사료가격을 인상하였다.

지난 10여년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추세를 보여주고 있던 국제곡물시장이 이같이 폭등하였던 배경은 미국의 생산감소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 재고율의 급격한 하락등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곡물수입국들의 수입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출국들의 곡물공급 여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데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사료곡물 수출국이었던 아시아지역의 중국이나 태국같은 나라들이 사료곡물 수입국으로 변화되었고, 최소한도 자급수준을 유지하던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새로운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와 대만만 하더라도 지난 20여년 동안 해마다 10% 이상의 물량증가를 보여왔다. 이와같은 배경에는 지난 10여년동안 지속되어온

선진국들의 저곡가 시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국제곡물가격 하락세를 부채질 했고, 이로 인해 많은 농업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의욕을 포기하고, 선진농업국의 식량우산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미국과 경합을 유지해 오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 태국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국제곡물시장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몇몇 선진농업국가들의 공급자 독점구조로 변화되었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마저도 지난 수년동안 기상조건의 악화등으로 인하여 공급량이 크게 떨어졌으며, 호주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으로 부터 사료용 수수를 수입해야만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세계 사료곡물 재고율은 급년에 9.3%까지 떨어졌고, 미국의 경우는 사상 유례없이 낮은 5.6%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옥수수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심하여 겨우 4.4%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와같은 재고율은 총사용량에 대한 재고량의 비율로 FAO같은 경우 적정재고율로 17~18%선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미산 옥수수의 경우 그동안 30~40%선을 유지해 왔다.

또한 이와같은 곡물공급량의 감소와 함께 곡가상승을 부추킨 요인으로서 WTO체제 출범이후 많은 곡물수출국들이 수출보조금 지불을 중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 곡물수출을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철도운

송비를 보조해 주었고, EC같은 경우에도 수출촉진을 위해 많은 보조금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조금 지불이 중단되면서 국제곡물가격도 그만큼 상승요인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곡물수송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해상운임도 크게 상승하여 과거(92년) 미국서해안에서 수입하는 옥수수의 경우 톤당 10불을 지불하던 것이 1월의 경우 톤당 16불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국제사료곡물 가격은 사상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세계 사료곡물가격의 바로메타로 작용하고 있는 CBOT의 옥수수 선물시세가 개장 이래 최고가격을 갱신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또한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가격의 상승은 기타곡물들의 동반상승을 몰고와 과거 옥수수의 대체원료로 이용되던 소맥, 호밀, 수수, 보리 등마저도 품귀현상을 빚게 되었다.

다행히 최근들어 국제사료곡물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불과 몇달전만 하더라도 물량확보에 대한 우려마저 나올 정도로 국제사료곡물의 수급사정은 극히 불안한 양상을 보여왔다.

3. 향후 국제사료곡물시장의 전망

지난해 미국의 옥수수 생산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감소피해없이 순조로운 수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카

나다의 소맥 및 대맥생산량도 크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1997년도 국제사료곡물수급 및 가격은 지난해보다 훨씬 개선되리라 보여진다.

지난해 10월11일 미국농무성이 발표한 곡물수급보고서(USDA CROP REPORT)에 따르면 세계 사료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9.9%, 기말재고량은 19.1%, 증가하고, 세계 옥수수생산량은 9.5%, 기말재고량은 16.4%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같은 세계 사료곡물수급상황의 개선은 미산 옥수수의 생산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96/97년 미산 옥수수생산량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2억2,89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말재고량도 2,300만톤으로 금년도의 1,080만톤에 비해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10.6%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계 및 미국의 사료곡물재고율이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과거 평균재고율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는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해 10월11일 발표된 96/97년도 세계 사료곡물예상재고율은 12.6%이고, 미국의 옥수수 예상재고율도 10.6%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호주등과 같은 주요생산국들의 생산감소나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제사료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다시한번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해 볼 때 금년도 사료곡물 시장은 지난해에 비하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여 동안 경험했던 곡가상승은 그동안 옥수수 생산에 소극적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 등의 생산을 자극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사료용 곡물소비를 감소시켰다.

아무튼 국제곡물가격은 반드시 떨어져야만 하고, 이로인해 국내 배합사료가격도 반드시 안정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곡가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환율이 인상되면 곤란하다. 1996년 4월까지만 해도 달러에 대한 원화매매기준율이 782원이었던 것이 1996년 12월 16일 현재 843원까지 상승하여 7개월만에 7~8% 인상하였다. 환율은 전수입원료에 골고루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곡가상승보다 더 큰 부담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하루빨리 원화 가치가 안정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곡가상승시 기허구매된 옥수수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부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배합사료 가격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듯이 사료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수준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동안의 곡가상승은 국내배합사료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당분간 곡가가 안정되면서 배합사료가격도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므로 양축농가 스스



로 적절한 생산규모를 유지하여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향후 사료산업의 장단기 대책

농업생산은 자연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산품과 달리 일시에 공급을 증대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국내 생산을 통해 자급율을 높여나간다 해도 지금과 같이 외국 사료원료 가격의 4~6배되는 원가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축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금년도의 곡가파동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국민식량에 대한 자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차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수입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사료용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되어왔고, 이에 따라 수입선의 다변화, 수입곡종

의 다양화를 통한 공급자 독점시장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지만 금년과 같이 대체곡물이 없고, 오히려 여타수입국들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한 시카고 선물시장에 대한 참여와 현지 개발수입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선물거래는 현재 많은 국내 사료회사나 곡물수입회사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거래의 속성상 일부분의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는 있을지 언정 이것이 만능일 수는 없다.

그러나 선물거래 방법이 곡가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라 할 지라도 현재의 주어져 있는 여건하에서 최선의 방법인 만큼 이에 대한 참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사료기업과 축협중앙회에서는 그동안 곡가상승시에 일부 구매물량에 대하여 선물거래등으로 커버함으로써 효율적인 구매를 해오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예기치 못한 곡가상

승과 사료용 소맥, 호밀, 수수 등의 소량유통품목들에 대해서는 장기공급계약등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물량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곡가상승과 배합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양축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더 적은 부담을 갖게 된 것은 소맥이나 호밀등의 성공적인 장기계약에 기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본과 같은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곡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시에만 가능하고, 현재 축산을 경영하는 양축농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적립을 시켜야 하는데 이에 동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정부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업규모 양축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전 양축농가에 확대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전업양축농가를 지원 장려해주고 지금에 와서 중소양축농가만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WTO체제의 출범이후 외국의 축산물 수입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원료의 관세 또한 일본과 같이 무세로 해주어야 마땅하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곡가상승과 관련 금년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해당품목을

8개로 확대하고 옥수수, 소맥, 호밀, 수수 등에 대해서는 0%로 해주었으나 일본이 모든 사료용 원료에 대하여 무세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다.

또한 그동안의 곡가상승은 국내 배합사료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당분간 곡가가 안정되면서 배합사료가격도 안정

을 되찾게 될 것이므로 양축농가 스스로 적절한 생산규모를 유지하여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축산이 없이 사료산업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료산업이 없는 축산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인만큼 이제는 상호 공존·발전해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필자연락처:02-581-5721)

〈표 2〉 세계 사료곡물 수급동향

(단위 : 백만톤)

| | | 생산량 | 소비량 | 기말재고 | 재고율(%) |
|--------|----------|-------|-------|--------|--------|
| 세계사료곡물 | 96/97(A) | 873.5 | 856.3 | 107.7 | 12.6 |
| | 95/96(B) | 795.0 | 838.1 | 90.1 | 10.8 |
| | A/B(%) | +9.9 | +2.2 | +19.1 | |
| 세계 옥수수 | 96/97(A) | 562.2 | 551.8 | 73.4 | 13.3 |
| | 95/96(B) | 513.6 | 543.2 | 63.0 | 11.6 |
| | A/B(%) | +9.5 | +1.6 | +16.4 | |
| 미국 옥수수 | 96/97(A) | 228.9 | 217.1 | 23.0 | 10.6 |
| | 95/96(B) | 187.3 | 216.5 | 10.8 | 5.0 |
| | A/B(%) | +22.2 | +0.3 | +113.0 | |
| 미국 수수 | 96/97(A) | 19.4 | 18.5 | 1.8 | 10.0 |
| | 95/96(B) | 11.7 | 12.5 | 1.0 | 7.7 |
| | A/B(%) | +65.8 | +48.0 | +80.0 | |
| 미국 보리 | 96/97(A) | 8.6 | 9.3 | 2.5 | 26.8 |
| | 95/96(B) | 7.8 | 9.0 | 2.2 | 24.5 |
| | A/B(%) | +10.2 | +3.3 | +13.6 | |

(자료 : USDA Crop Report, Oct 11, 1996)

〈표 3〉 미국 옥수수 수급동향

(단위:백만톤)

| 년도 | 기초재고 | 생산량 | 총 공급량 | 국내 소비량 | 수출량 | 총 사용량 | 기말 재고량 | 재고율 (%) |
|-------|------|-------|-------|--------|------|-------|--------|---------|
| 90/91 | 34.1 | 201.6 | 235.8 | 153.3 | 43.8 | 197.1 | 38.6 | 19.6 |
| 91/92 | 38.6 | 190.4 | 229.0 | 160.8 | 40.2 | 201.1 | 27.9 | 13.9 |
| 92/93 | 27.9 | 241.3 | 269.2 | 173.1 | 42.2 | 215.3 | 53.7 | 24.9 |
| 93/94 | 53.7 | 161.5 | 215.1 | 159.8 | 33.7 | 193.6 | 21.6 | 11.2 |
| 94/95 | 21.6 | 256.9 | 278.5 | 183.6 | 55.3 | 238.9 | 39.6 | 16.6 |
| 95/96 | 39.6 | 187.3 | 227.3 | 160.2 | 56.3 | 216.5 | 10.8 | 5.0 |
| 96/97 | 10.8 | 228.9 | 240.0 | 167.5 | 49.5 | 217.1 | 23.0 | 10.6 |

(자료 : USDA Crop Report, Oct 11, 1996)